


<div>교훈 : 성실</div> 	가 정 통 신 문	제 2022 - 49 호
	장애인의 날 안내 및 장애인권교육	담당 : 교무기획부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교무실) 031-365-8200 ☎ (행정실) 031-365-8210

빛나지 않는 별, 차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장애인권교육을 위한 안내 자료를 배부합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걸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때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에 대해 되돌아보는 날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많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어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날 대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

언젠가 다름이 인정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장애인의 날'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막연한 먼 훗날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장난삼아, 악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평범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칼이 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별생각 없이 던진 표현들이 내 친구, 가족에게도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고정관념 + 편견 + 혐오 + 습관 = 차별어의 탄생!!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출처: 김청연,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동녘, 2019

2022. 4. 20.

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직인 생략]